

한·중 품사전성 대비 고찰

-영변화 파생어와 겸류현상을 중심으로-

박홍수* · 김영희**

目 次

1. 서론
2. 영변화 파생어와 겸류어의 설정기준
3. 영변화 파생어와 겸류어의 양상대비
4. 결론

1. 서론

우리가 언어를 잘 구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의 어휘, 음성, 어법 등의 기본적인 언어 체계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한다. 특히 다양한 어휘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단어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품사를 잘 이해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외국어를 배울 때 단어의 품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한국어와 어계가 다른 중국어를 학습할 때 한자 자체가 가진 모호성·포괄성 때문에 중국어 단어의 품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기란 쉽지 않은데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주된 품사전성¹⁾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경우 단어의 품사는 대부분 하나로 정해져 있고 품사가 전환될 때 마다 그에 따른 접어²⁾, 특히 접미어가 첨가되는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접어를 통한 품사전성은 극소수이고 단어가 형태변화 없이 다른 문장 속에서 다른 품사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한·중 품사전성은 크게 접어에 의한 품사전성과 접어에 의하지 않은 품사전성으로 나눌 수 있고, 한국어는 전자의 형식으로, 중국어는 후자의 형식으로 품사전성을 이루는 것이 보편적이다. 본고에서는 이 중 접어에 의하지 않고 형태변화 없이 이루어지는 품사전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한국어에서는 한 단어가 형태를 변화 시키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의 통사범주를 갖는 현상을 ‘영변화 파생’이라고 하고³⁾ 중국어에서는 ‘兼类’라 하고 이러한 어휘류를 ‘겸류어(兼类词)’라 부

* 한국외국어대학 교수 parkhs@hufs.ac.kr

** 한국외국어대학 석사생 regine83@hanmail.net

1) 품사전성이란 한 단어가 본디와는 다른 문법상의 성질을 가져 다른 품사로 되는 일이다. ‘밤과 낮’이라는 뜻의 명사 ‘밤낮’이 ‘늘, 항상’이란 뜻의 부사로 쓰이는 경우나, ‘높다’라는 형용사가 ‘높이다’라는 동사로 되는 일 따위를 말한다. 『동아 새국어사전, 1996』, 2176쪽

2) 한국어에서 보편적으로 ‘접사(接辭)’라고 하는데 본고에서는 통일된 술어표현을 위해 ‘접어(接語)’라고 한다.

3) 한국어에서 이러한 현상을 과거에는 ‘품사의 전성’(최현배, 1937/1991), ‘품사의 통용’(홍기문, 1947)이라 일컬었

른다.4) 영변화 파생어와 검류어는 한 중 언어의 유형이 다르므로 인해 용어와 개념 방면에서 일치하지는 않지만5) 단어가 동일한 형태로 의미의 연관성을 가지면서 서로 다른 문장 속에서 통사범주를 다르게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한·중 품사전성 중에서도 형태가 변하지 않고 품사를 전성하는 영변화 파생어와 검류어에 대해 비교·고찰하여 중국어 학습자가 한국어와 다른 중국어의 품사전성 양상을 이해하고 중국어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2. 영변화 파생어와 검류어의 설정기준

영변화 파생어와 검류어를 논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그 설정기준과 범위이다. 즉 어디까지를 영변화 파생어와 검류어로 설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영변화 파생어와 검류어 모두 형태가 동일하고, 의미상으로 관련성을 지니면서 여러 통사범주 안에 속할 수 있는 단어를 말한다. 이들의 설정기준을 논할 때 크게 형태·음운의 동일성, 의미상 관련성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2.1 형태·음운의 동일성

한국어 영변화 파생어와 중국어의 검류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형태와 음운의 동일성이다.6)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한국어에서는 영변화 파생어라도 파생의 기능이 없는 ‘-다’, ‘-게’와 같은 어미는 여기 뒤에 첨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5) a. 덜다-덜, 신-신다, 빗-빗다, 풀-푸르다

(6) a. 都 dū, 都 dōu

b. 精神 jīngshén, 精神 jīngshen

c. 是 shì, 事 shì

(5a)에서 ‘덜다’는 동사에서 ‘덜’이라는 부사로 파생했고, ‘신’은 명사에서 ‘신다’라는 동사로, ‘풀’은 명사에서 ‘푸르다’라는 형용사로 파생되었다. 이처럼 접미어의 도움 없이 여기 자체가 ‘-다’와 결합하여 형태적 변화 없이 품사가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7) 예(6a,b)는 형태가 같아서 한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음운(성모, 운모, 성조)이 달라서 다른 단어로 취급해야 하는, 즉 검류어로 분류할 수 없는 단어들이다. 중국어에서 이러한 단어들은 매우 많다. (6a)의 都는 ‘도시’라는 의미의 명사와 ‘모두’라는 의미의 부사로 쓰일 수 있는데, 각각 ‘dū’, ‘dōu’로 운모가 다르다. (6b)에서 이음절어인 ‘精神’도 ‘jīngshén’일 때는 ‘정신’이라는 뜻의 명사로 쓰이지만 ‘jīngshen’일 때는 ‘원기’, ‘활기차다’, ‘기운내다’의 명사·형용사·동사의 역할을 하는 다른 단어

지만 파생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는 ‘영접어 파생’(송철의,1992), ‘영변화 파생’(김정은,1995)11)이라고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영변화 파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4) 『중국어 어법방법론』에서는 이러한 단어류를 ‘검품사어’라 칭하였고, 『현대 중국어의 이해』에서는 ‘다품사어’라고 번역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논저에서 ‘검류어’라 칭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이를 따르고자 한다.

5) 교착어인 한국어는 파생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는 품사전성을 할 때 한 통사범주를 가지고 있던 본래의 단어가 다른 통사범주로 파생한 것으로 봐야하는데, 고립어인 중국어는 일반적으로 한 단어가 애초부터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통사범주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품사전성을 논한다.

6) 한국어도 음장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단어가 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형태적인 부분만을 연구할 것이다.

7) 여기서 ‘-다’는 어미로서 파생의 기능이 없으며 범주의 속성상 출현하는 것으로 영변화 파생의 짝으로 볼 수 있다. 이흥식 (1996), 187쪽

이다. 이 둘은 성모와 운모는 같지만 성조가 다르므로 같은 단어가 아니다. 그러므로 ‘都’와 ‘精神’은 형태는 같지만 음운형식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검류어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6c)와 같이 음운 형식은 같지만 형태가 같지 않은 ‘是’과 ‘事’도 검류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2.2 의미상 관련성

영변화 파생어와 검류어의 설정기준으로 형태상 · 음운상 동일하고 통사 범주가 달라진다는 조건 외에 의미상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야 한다. 의미상 관련성이 없으면 한국어에서는 ‘동음이의어’로 중국어에서는 ‘동음어’⁸⁾로 처리하여 별개의 단어로 봐야한다.

- (7) a. 쓰-(苦) : 이 약은 아주 쓰다. (형)
 b. 쓰-(書) : 그는 글씨를 또박또박 썼다. (동)
 c. 쓰-(冠) : 수영이는 날씨가 추워서 모자를 썼다. (동)
 d. 쓰-(用) : 우리는 나뭇가지를 꺾어 젓가락으로 썼다. (동) (이홍식, 1996)
- (8) a. 那牆刷得很白。
 (그 벽은 하얗게 페인트칠 되어있다.)
 b. 我白跑了一趟。
 (나는 한바탕 헛걸음하였다.)

위 예(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쓰-’라는 어기는 형태상 동일성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품사도 다르게 나타나지만 (7a~d)는 서로 의미상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들을 동음이의어로 처리하고 영변화 파생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 중국어에서도 의미상 관련성이 없는 단어들은 검류어로 취급하지 않고 서로 다른 단어로 간주한다. 물론 한 단어가 품사가 바뀌면 그 의미가 완전히 같을 순 없지만 그 의미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검류어라 할 수 있다. 예를들어 (8a)에서 ‘白’는 ‘희다’라는 뜻의 형용사이고, (8b)에서 白는 ‘헛되이’라는 부사로 쓰였다. 비록 한 단어가 두 가지 품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동음어이지 검류어는 아니다.

하지만 중국어의 동음어와 검류어를 구분하고, 한국어의 동음이의어와 영변화 파생어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상 관련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는 없다.

3. 영변화 파생어와 검류어의 양상대비

한국어의 영변화 파생어는 검류어처럼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서 문법기능이 바뀌지만 파생의 개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파생 이전의 단어와 파생 이후의 단어로 구분된다. 하지만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중국어의 검류어도 품사가 전성되는 것인 만큼 본 품사(本类 또는 原类)와 전환된 품사(转类)가 있다. 예를 들어 ‘一挑柴禾’에서 ‘挑’는 원래 동사의 의미에서 양사로 바뀐 것이고, ‘锁门’의 경우 ‘锁’는 원래 명사에서 동사로 전환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본 품사와 전환된 품사를 구분하기 매우 힘들다. 영변

8) 중국어에서는 同形同音이지만 의미상 관련이 없는 단어들을 중국어에서는 동음어(同音词)로 처리한다.

화 파생어와 검류어의 실제 양상을 비교함에 있어서 이 두 현상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영변화 파생어는 가능한 경우 파생의 전후를 밝히고 검류어는 검류현상만을 다루어 비교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지는 예들은 주로 『现代中韩词典(1997)』, (이흥식(1996), 김정은(1994), 조아라(2003), 秦礼君(1996), 陆俭名(2005)에서 발췌한 것이다.

3.1 명사와 동사

한국어에서 동사어거나 동사의 활용형⁹⁾이 영변화 파생을 통해 명사로 파생된 사례가 몇몇 있다. 하지만 명사에서 동사로 파생된 경우는 없다.

- (9) a. [몽치-] 눈을 몽치다. (동사)
 [몽치] 신문 몽치를 풀다. (명사)
- b. [부풀-] 반죽이 부풀다. (동사)
 [부풀] 부풀이 일다. (명사)
- b. 짜구려! (동사활용형)
 이 물건은 짜구려이다. (명사)

(9a)에서 ‘몽치-’라는 동사 어근이 명사로 파생되었고, (9b)의 ‘부풀-’도 명사 ‘부풀(종이 피륙의 거죽에서 일어나는 가는 털)’로 파생되어 쓰임을 알 수 있다. (9c)에서는 ‘짜구려(상인이 손님을 끌기 위해 싸다는 뜻으로 외치는 소리)’라는 동사의 활용형이 명사형으로도 활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 동사 어기가 영변화 파생에 의해 명사로 파생된 예로는 ‘빚-:빚’, ‘버무리-:버무리’ 등이 있고, 동사의 활용형이 명사로 파생된 예로 ‘받자’, ‘사자’, ‘옹지’ 등이 있다.

중국어에서 명사와 동사의 품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동명 검류어는 전체 검류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¹⁰⁾

- (10) a. 小李的病好了。(명사)
 (이군의 병은 다 나았다.)
 小李病了好几天。(동사)
 (이군은 오랫동안 병을 앓았다.)
- b. 你有什么打算? (명사)
 (무슨 계획이 있니?)
 你打算怎么办? (동사)
 (어떻게 할 작정이야?)
- c. 今天的足球比赛真好看。(명사)
 (오늘의 축구경기는 정말 재미있었다.)
 朗诵已经比赛过两场了。(동사)
 (낭송은 이미 두 번이나 경기를 가졌다.)

9) 용언의 어미나 서술격 조사가 쓰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한 어형 《동아 새국어사전》

10) 『词汇大纲』에 수록된 명사-동사-형용사 검류어의 비율을 언급한 「从两种词表看名、动、形兼类的处理」에서 명동 검류어의 비율은 명동형 검류어 중 82.5%를 차지하였다.

예(10)에서 ‘病’, ‘打算’, ‘锁’, ‘比赛’는 각각 동사와 명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단어들이 명사가 될 때에는 앞에 ‘的자구’, ‘什么’, 또는 다른 명사의 수식을 받고, 동사일 때는 어기조사 ‘过’, ‘了’등을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런 동·명 검류어는 ‘代表’, ‘记录’, ‘导演’, ‘报告’, ‘游泳’, ‘命令’등 무수히 많다.

3.2 동사와 형용사

한국어에서 영변화 파생에 의해 동사어기에서 형용사로 파생되는 경우는 없으며, 모두 형용사어기가 동사로 파생되는 경우이다.

- (11) a. [늦-] 속도가 늦다. (형용사)
 [늦-] 기차 시간에 늦다. (동사)
 b. [크-] 나무가 크다. (형용사)
 [크-] 나무가 빨리 크다. (동사)

(11)에서처럼 형용사 어기가 동사로 파생되는 경우, 동사는 모두 자동사로만 사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10b)에서처럼 ‘크-’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빨리’와 같은 부사와 함께 쓰일 수 없지만 ‘자라다’라는 의미인 동사일 때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중국어 어휘를 학습하고, 품사를 공부할 때 가장 혼동하기 쉬운 것이 바로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이다. 대부분의 경우 형용사인 경우 ‘很’을 수반하고, 동사인 경우 목적어를 수반한다는 기준으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다. 동사와 형용사를 겸하는 단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2) a. 她亲了一下孩子, 就走了。(동사)
 (그녀는 아이에게 입 맞추고 떠났다.)
 他们很亲。(형용사)
 (그들은 매우 친밀하다.)
 b. 日夜商店方便了周围的居民。(동사)
 (편의점은 주위 시민들을 편리하게 해준다.)
 造了立交桥, 交通方便多了。(형용사)
 (입체교차교를 세우고 교통이 훨씬 편리해졌다.)

(12a)의 첫 번째 문장에서 ‘亲’은 동사로 쓰여 목적어를 취하였고, 두 번째 문장의 ‘亲’은 형용사로서 ‘很’을 취하였다. 이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예 (12b)의 ‘方便’은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 두 번째 문장에서는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 형용사로서의 의미는 ‘便利’, 동사로서의 의미는 ‘使便利’이다. 이렇게 목적어를 취하여 사동의 의미를 갖게 되는 형용사-동사 검류어의 수는 꽤 많으며 그 변화가 매우 규칙적이다. 예를 들어 ‘充实’는 ‘풍부하다’라는 뜻의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充实内容’과 같이 목적어를 취하여 동사의 역할을 할 경우, ‘使内容充实’의 의미가 된다. 즉, 이러한 형용사 동사 검류어는 목적어를 동반하면 동사로, 그 외의 경우에는 형용사로 취급하면 된다.

3.3 형용사와 부사

한국어에서는 형용사가 영변화 파생에 의해 부사로 파생되는 경우는 있지만 부사가 형용사로 파생되는 경우는 없다.

- (13) a. [느리-] 거북이는 느리다. (형용사)
[느리] 시계가 느리게 간다.¹¹⁾ (부사)
b. [아니-] 사실이 아니다. (형용사)
[아니] 아니 가다. (부사)

(13a)에서 ‘느리-’는 형용사이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부사로 쓰임을 알 수 있다. 예 (13b)의 ‘아니-’는 원래 형용사이지만 용언 앞에 쓰여 부정 또는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로 쓰일 수 있다. 이를 ‘안’으로 바꾸어 쓸 수도 있다.

중국어에서 부사와 형용사를 겸하는 단어는 꽤 많다.

- (14) a. 你起得真早。(형용사)
(너는 매우 일찍 일어난다.)
我们早走了。(부사)
(우리는 일찍 떠났다.)
b. 坐汽车比骑自行车要快。(형용사)
(차를 타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빠르다.)
快跟我走! (부사)
(빨리 나를 따라와라.)
老李快回来了。(형용사)
(이군은 곧 돌아올 것이다.)

예(14a)에서 ‘早’는 형용사일 때 ‘이르다’, ‘빠르다’로써 보어 역할을 하였으며, 부사일 때 ‘일찍이’, ‘오래 전에’라는 뜻으로 쓰여 ‘就’와 함께 쓰는 경우도 많다. (14b)에서 ‘快’가 부사로 쓰일 때 두 번째 문장에서처럼 ‘빨리’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세 번째 문장에서처럼 형용사로써 ‘快...了’의 형태로 쓰여 ‘곧 ~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형용사 · 부사 겸류어는 이 외에 ‘直’, ‘怪’, ‘老’, ‘全’, ‘白’, ‘光’, ‘偏’, ‘真’, ‘干’ 등이 있다.

3.4 명사와 부사

한국어에서는 명사와 부사를 겸하는 어기가 상당히 많다.

- (15) a. 나는 그에게 가까이 갔다. (부사)
공원 가까이에 우체국이 있다. (명사)
b. 그는 답을 잘못 썼다. (부사)
나는 잘못을 뉘우쳤다. (명사)

11) ‘-게’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앞에 오는 동사나 형용사의 내용이나 정도를 제한하는 연결 어미이다. 어미는 파생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영변화 파생어이다.

- c. 나는 오늘을 잊지 못할 것이다. (명사)
 오늘 나는 친구네 집에 갔다. (부사)
- d. 그는 밤낮으로 일만 한다. (명사)
 그는 밤낮 놀기만 한다. (부사)

(15a)와 (15b)는 부사가 명사로 파생된 예들이고 (15c)와 (15d)는 명사가 부사로 파생된 예들이다. (15a~d)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품사가 부사일 때는 그 형태가 바뀌지 않으면서 뒤에 있는 용언을 수식하지만 품사가 명사일 때는 체언에 붙는 부사격 조사 ‘-에, -을, -으로’ 등이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²⁾ (15c)와 (15d)처럼 명사 어기가 영변화 파생에 의해 부사로 파생되는 것은 영변화 파생에 있어 가장 생산적이다(이현규 1981:103, 심재기 1982:404-8). 이들 명사 중 ‘거기’, ‘언제’, ‘저기’와 같은 대명사도 포함된다.

중국어의 겹류어 중 명사와 부사를 겸하는 단어는 아래와 같다.

- (16) a. 公园每天早晚为老人免费开放。(名)
 (공원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노인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他不听劝告, 早晚会上吃亏的。(副)
 (그는 충고를 듣지 않아서 조만간 손해를 볼 것이다.)
- b. 我们俩一齐到, 不分先后。(名)
 (우리 둘은 동시에 도착해서 선후가 없다.)
 他比我先走两天。(副)
 (그는 나보다 이틀 먼저 출발했다.)
- c. 他思想上有了反复, 还要做做工作。(名)
 (그의 생각에 반복이 있었으나 일을 해야한다.)
 他反复检查后才放心。(副)
 (그는 반복해서 검사를 한 뒤에서야 마음을 놓았다.)

예(16a)에서 위의 ‘早晚’은 ‘아침과 저녁’이라는 뜻의 명사로 쓰였지만, ‘早晚’이 부사로 쓰이면 ‘조만간’이라는 뜻이 된다. 부사와 명사를 겸하는 단어들은 이처럼 품사가 바뀔 때 그 의미상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겹류어로 취급하지 않는 논문들도 있다.¹³⁾ 예 (16b)에서 ‘先’은 명사일 때 ‘앞’, ‘선두’라는 의미로 쓰여 여기서는 뒤에 있는 명사 ‘后’와 결합하여 ‘선후’라는 합성명사가 되었다. ‘先’이 부사일 때는 ‘먼저’, ‘우선’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예(16c)의 ‘反复’는 위 문장에서 각각 명사와 부사로 쓰였지만 사전에는 ‘反复’의 동사·부사 품사만이 정의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3.5 동사와 부사

한국어에서는 영변화 파생에 의해 동사어기가 부사로 기능하는 어휘들이 있다.

12) 관점에 따라 ‘명사+조사’에서 조사를 접미어로 처리하기도 하나(하치근:1993), 조사에는 파생기능이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영변화 파생어로 간주한다.

13) 秦礼君(1996)에서는 명사와 부사를 겸하는 겹류어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조아라(2003)에서는 이를 겹류어로 분류하여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 (17) a. [내리-] 비가 내리다. (동사)
 [내리] 내리 세 시간을 서 있었다. (부사)
 b. [익히-] 감자를 익히다. (동사)
 [익히] 사정을 익히 알다. (부사)
 c. [삼가-] 어른 앞에서 말을 삼가다. (동사)
 [삼가] 삼가 글을 올립니다. (부사)

위의 예문들은 모두 동사어기에서 부사로 파생된 것으로 한국어에서 이 반대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중국어에서 동사와 부사의 기능을 겸하는 어휘는 그리 많지 않다.

- (18) a. 我是工人。 (동사)
 (나는 노동자이다.)
 我是出去了。 (부사)
 (나는 외출하였다.)
 b. 东方人跟西方人相比较, 好象更看重家庭一些。 (동사)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가정을 중시하는 것 같다.)
 这首诗写得比较优美。 (부사)
 (이 시는 매우 우아하게 쓰여졌다.)

부사는 동사 혹은 형용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18a)에서 ‘是’은 ‘확실히’, ‘정말로’라는 뜻의 강한 긍정을 표시하는 부사로서 동사 ‘出去’를 수식하고, (18b)에서 ‘比较’는 정도 부사로서 형용사 ‘优美’를 수식하고 있다.

3.6 명사와 형용사

한국어에서는 영변화 파생으로 인해 명사에서 형용사로, 또는 형용사에서 명사로 파생되는 단어는 없다.¹⁴⁾ 중국어에서 형용사와 명사를 겸하는 어휘의 양은 그다지 많지는 않으나 어휘를 사용함에 있어 쉽게 오용한다.

- (19) a. 你们有什么困难, 来找我。 (명사)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찾아와라.)
 生活也困难起来了。 (형용사)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b. 新中国每个公民都有在法律规定范围内的自由。 (동사)
 (신중국에서는 매 국민이 법률규범 범위 안에서 자유가 있다.)
 看来你们非常自由。 (형용사)
 (보아하니 당신들은 매우 자유롭군요)
 c. 老王喜欢吃辣, 他太太怕辣, 两个人的口味有矛盾。 (명사)
 (왕씨는 매운 것을 좋아하는데 그의 부인은 매운 것을 싫어해서 둘의 입맛은 맞지 않는다.)

14) “겨울산의 경치”라는 구에서 ‘겨울산’이라는 체언에 “의”가 붙어 명사가 형용사로 파생된 것처럼 보이나 ‘-의’는 관형격 조사로서 활용의 기능이 없고, 오로지 체언만 수식하고 서술형을 가질 수 없다.

这种意见并不矛盾。(형용사)
 (이 의견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명사와 형용사는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예(19a)와 (19b)의 첫 번째 문장에서 ‘困难’ 앞에 ‘有’, ‘自由’ 앞에 ‘的’를 통해 명사라는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또한 (19b)와 (19c)의 두 번째 문장에서 ‘自由’앞에 ‘非常’, ‘矛盾’앞에 ‘不’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 단어들이 형용사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명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4. 결론

한·중 품사전성 양상은 크게 접어를 통한 품사전성과 접어를 통하지 않는 품사전성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접어를 통하지 않고 형태 변화 없이 품사가 전성되는 한국어의 ‘영변화 파생어’와 중국어의 ‘검류어’에 대해 비교·고찰해 보았다. 영변화 파생어와 검류어는 모두 한 단어가 형태변화 없이 의미적 연관성을 가지면서 다른 품사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2장에서는 우선 영변화 파생어와 검류어의 설정기준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기준은 형태·음운상의 동일성이다. 표음문자인 한국어는 단어의 형태의 변화에 따라 음운도 달라지기 때문에 형태가 영변화 파생어를 설정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하지만 중국어의 단어는 같은 형태라도 음운을 구성하는 성모, 운모, 성조가 달라짐에 따라 서로 다른 단어가 되기 때문에 형태 뿐 아니라 음운도 동일해야 검류어로 인정될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은 의미상 관련성의 유무이다. 즉 영변화 파생어와 검류어 모두 형태와 음운이 동일하더라도 의미상 무관하면 안된다. 의미상 관련이 없으면 한국어에서는 이를 ‘동음이의어’로, 중국어에서는 이를 ‘동음어’로 처리한다. 3장에서는 한·중 언어의 명사·동사·형용사·부사를 중심으로 한 영변화 파생어와 검류어의 실례를 나열하고 이를 대조하였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어에서는 명사와 부사, 즉 명사어기가 부사로 파생되는 경우이며, 중국어의 경우는 명사와 동사를 겸하는 검류어가 가장 많았다. 또한 중국어에서 명사와 형용사를 겸하는 검류어는 존재하나 명사에서 형용사로 또는 형용사에서 명사로 파생되는 영변화 파생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영변화 파생어와 검류어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¹⁵⁾

	영변화 파생어	검류어
명사 · 동사	△	○
동사 · 형용사	△	○
형용사 · 부사	△	○
명사 · 부사	△	○
동사 · 부사	△	○
명사 · 형용사	×	○

형태가 풍부한 한국어는 형태를 통해 품사의 기능을 표현하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비교적 분명히 품사를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어는 하나의 단어 형태가 여러 품사를 내포하고 있어서 경제적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문장 속에서 품사를 정확히 가려내기 힘들기 때문에 문맥을 잘

15) 여기서 ‘○’는 ‘~보다 많음’을, ‘△’는 ‘~보다 적음’을, ‘×’는 全無함을 나타낸다.

과약해야 한다. 이러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품사전성 양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학습자가 좀 더 효율적으로 단어의 품사를 공부하고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사전류

이기문 감수, 『동아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96

高大民族文化研究所, 『现代中韩词典』, 1997

-단행본

北京大学中文系现代汉语教研室 编, 『现代汉语(重排本)』, 商务印书馆, 2007

북경대학 중문과 현대한어 연구실, 이영애 외 옮김, 『현대중국어의 이해』, 서울, 차이나 하우스, 2007

陆俭名(2005), 『现代汉语语法研究教程(第三版)』,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陆俭名, 김현철 역, 『중국어 어법 방법론』, 서울, 차이나 하우스, 2007

胡裕树, 『现代汉语(第6版)』,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5

송철의,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1992

심재기, 『국어어휘론』, 서울, 집문당, 1982

장운철, 『테마로 배우는 현대 중국 언어학 개론』, 서울, 소통, 2008

최현배, 『우리말본』, 서울, 정음문화사, 1937.1991

홍기문, 『조선문법 연구』, 서울, 서울신문사, 1947

-논문류

김정은, 『현대 국어의 단어 형성법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박사학위논문, 1994

김현아, 『현행 고등중국어교과서 품사의 검류현상 및 구분방법』,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중 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1

이흥식, 「현대 국어의 영접어 파생에 대한 고찰」, 『한국언어문학』 제 37기, 1997

조경화, 『계열관계 중심의 고등학교 중국어 어휘 지도 방안』,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중국어 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5

조아라, 『현대 한어 명동사의 검류사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최소영, 『효율적인 개사 교육을 위한 지도 방안 연구』 :고등학교 《중국어 I》 교과서를 중심으로, 충남대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7

하치근, 「파생법에서 어휘화한 단어의 처리문제」, 『우리말 연구2』, 1992

安华林, 「从两种词表看名、动、形兼类的处理」, 『语言教学与研究』, 2005年第4期

陈一, 「动名兼类词与n的v / n 结构」, 『求是学刊』, 1998年 第一期

翟淑英, 「谈现代汉语中词的兼类问题」, 『内蒙古大学学报』, 2006年6月

范虹艳, 「小议词的兼类与其在词典中的正确反映形式」, 『南昌高专学报』, 2008年6月

郑丽, 「试论词类问题中的"活用"和"兼类"」, 『渭南师范学院』, 2005年增刊(增总第13期)

古晓君, 温昌衍, 「语文学辞书兼类词和多义词释义中不宜出现原词」, 『南昌大学学报』, 2006年 5期

- 胡安顺, 「名词动用与兼类词的界限」, 『语言教学与研究』, 2006年 第5期
- 陆俭明, 「关于词的兼类问题」, 『中国语文』, 1994年 第1期 第32卷
- 林升华, 「名词活用作动词及动名词兼类辨西」, 『经济与社会发展』, 2006年9月
- 马前, 「现代汉语兼类词判定初析」, 『辽东学院学报』, 河北大学人文学院, 第8卷 总第48期, 2006年
- 朴重奎, 「動名詞和兼類詞的區別特征」, 『中國人文科學』, 第26期, 2003年
- 邵百鸣, 「动名兼类和动词名用的区别」, 『江西科技师范学院学报』, 2005年2月第1期
- 孙艳, 「谈现代汉语新的兼类现象」, 『聊城师范学院学报』, 2000年 第4期
- 秦礼君, 「汉语兼类词与日语词类转化」, 『军事经济学院学报』, 第三卷 第一期, 1996年
- 王文, 「形容词能否带宾语」, 『中州大学学报』, 1999年12月
- 温锁林, 刘开英, 「汉语名、动、形兼类词的两种鉴别方法」, 『语文研究』, 1998年 第1期(总第 66 期)
- 张全生, 惠天罡, 「确定形动兼类词的标准刍议」, 『语言与翻译』, 2002年 第4期(总第72期)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phenomenon of word conversion in Korean and Chinese

Park, Heng-Soo/ Kim, Young-Hee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conversion words in Korean and Chinese. Conversion words are those that have two or more grammatical functions depending on their context while retaining a related meaning. In Korean, which is an agglutinative language, the majority of words have only one grammatical function and their word class can only be changed by adding particular suffixes. However few words have more than one word class or have different grammatical functions in the different sentences, this small group is called "zero-derived conversion". On the other hand, in Chinese, which is an isolating language, one word often holds two or more classes at the same time and the word class is defined by the word order of a particular sentence.

In chapter 2 we address the definition of conversion words and introduce an approach for determining the difference between homophones and conversion words. Conversion words don't change form or pronunciation when they are used as a different word class and their meaning does not change significantly. If the meaning is not related it is a homophone, not a conversion word.

In chapter 3 we analyse some examples of conversion words in Korean and Chinese and compare them based on part of speech classifications: noun, verb, adjective and adverb.

Key Words : Conversion word, Word class, Zero-derived conversion, Noun, Verb, Adjective, Adverb